

# ‘우후죽순’ 맥주 축제... ‘천편일률’ 뻔한 축제

### 광주 지자체·DJ센터 등서 여는 축제만 5개...독창적 콘텐츠 없어 근산·홍천처럼 지역 특색 살린 축제 기획해 방문객 호응 얻어야

엔데믹 이후 광주 곳곳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지역 특색을 살리기는 커녕 천편일률 ‘맥주 축제’ 투성이라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획된 맥주 축제는 5개에 달하며, 특히 28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3곳에서 잇따라 맥주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 동구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동구 충장으로 4~5가 일대에서 총장45 마을협동조합 주최로 ‘충장길맥’ 축제를 연다. 또 광주시 서구청은 29일 서구 양동건어물시장 일대에서 ‘양동 건맥축제’를 개최한다.

8월 9일~12일에는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로 ‘비어페스트 광주’가 열린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동구청이 동구 구시청사거리 일대에서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얼맥 축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로 취소됐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은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통맥축제’가 열려 5만 7600여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슷비슷한 맥주 축제만 반복되면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축제들이 하나같이 특색이 없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총장로와 양동시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은 광

주에서 상징적인 지역인데, 각각의 특색을 살리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연구하기는 커녕 광주시 특산물도 아닌 ‘맥주’만 앞세워 개성없는 축제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은 맥주축제라도 지역 개성을 살려 ‘축제성’을 살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의 ‘수제맥주 페스타’의 경우 각 마을별로 직접 키운 보리·밀로 양조한 수제맥주를 선보이며 전국적인 맥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홍천군의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하이트강원공장에서가 만든 생맥주와 홍천군 내 수제맥주사들의 맥주를 선보이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맥주 축제를 기획했다.

반면 광주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들은 맥주는 커녕 행사장 내 콘텐츠마저도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개 맥주축제 모두 한결같이 가수·DJ 등 초청 공

연을 하고 푸드트럭과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미디어아트를 재생하거나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 외 별다른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축제 전문가들은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흥행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유인책으로만 써야 할 맥주를 중심으로 세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승권 조선대 문화학과 교수는 “지역 축제가 발전하려면 오직 광주의 축제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춰야 하며, 그러려면 지역 특색과 정체성 등 ‘축제성’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상품과 특색없는 콘텐츠로만 도배해서는 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들도 재방문을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과 축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모아 짜임새 있는 축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축제가 끝

난 뒤에도 단순히 방문객 수만 셀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 축제를 바라보고 향후 계획을 바로잡는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비슷한 맥주 축제만 잇따라 열리는 현상이 비단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며,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축제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지역 축제가 정체성을 불어넣을 것인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역문화기획자 이한호 주스컴퍼니 대표는 “그동안 지역 축제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최되면서 ‘안전 지향적’인 경향이 있으며, 방문객 수와 실적 내기에만 급급했다”며 “이 틀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주도, 공공 협력’ 방식의 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개인·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총장로 라온페스타 개막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2023년 총장르네상스 라온페스타 여름:ON' 축제가 개막했다. 행사 관계자들이 영화 '거울왕국', '트랜스포머' 등 등장인물로 분장하고 가리 행진을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올 상반기 5·18왜곡·편향 886건 적발

### ‘북한군 개입’ 43.5% 최다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2023년 상반기 5·18왜곡·편향 대응 모니터링을 한 결과 886건의 왜곡·편향 콘텐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문원을 통해 접수된 건수는 517건이며, 나머지는 직접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발했다.

내용별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386건(43.5%) 적발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5·18폭동설이 344건(38%), 지역 비하 등 기타 내용이 156건(17.6%) 적발됐다.

재단은 이 중 ‘일간베스트’, ‘디자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503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나머지 게시물 또한 홈페이지 관리자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재단은 또한 법원으로부터 판매·배포 금지 판결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왜곡 도서 ‘전두환 회고록 1’과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비제한 전국 공공도서관 10곳에 대출 중지요청서를 보냈다.

이밖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튜브 모니터링을 통해 5·18왜곡·편향 내용을 담은 영상 11개와 댓글 406개를 적발했으며, 이들을 유튜브 관리자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통신문원을 넣을 계획이다.

/유연제 기자 yjyou@

## 경찰청, 총경 344명 전보 인사

경찰청은 27일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고은경 총경을 발령하는 등 총경 34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면>

광주경찰청에서는 안보수사과장에 송기주 화순서장이 발령났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박종열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는 김진천 광주북부서장, 북부

서장에는 차복영 광주경찰청 경비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정덕진 영광서장이 오게 됐고 형사과장에 이상일 서울 경무기획과 차안지도관, 과학수사과장은 전북 진주덕진서장, 안보수사과장은 임진영 보성서장, 교통과장은 장승명 고흥서장이 각각 발령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환경단체 “환경부 4대강 사업 회귀 시도 안돼”

### 영산강 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 약속 이행 촉구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부에 영산강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외 4개 환경단체는 27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 추진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를 규탄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입장은 4대강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목표로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 토건 사업에 전력질주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환경부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과정과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구성에서 불공정·위법성 등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4대강의 보들은 홍수와 가뭄, 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와 5차 감사 결과의 오류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알려나가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대병원, 화순 주민 장수비결 찾는다

### 95세 이상 대상 ‘백세인’ 연구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은 화순군 일대에서 ‘백세인’ 연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백세인연구단은 지난 25일 전남대의과대학 화순캠퍼스에서 ‘백세인 건강 상태 및 생활한

경 연구조사’ 발대식을 했다.

연구단은 화순군 9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식습관, 가족·생활환경 변화 등을 전남대노화과학연구소와 함께 조사해 장수 요인을 분석한다. 조사는 오는 31일부터 약 3주간 화순군 읍·면을 방문해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